

설날 명절 가정예배

(이 예배는 집안의 어른이 인도하시면 좋습니다.)

▶예배의부름 인도자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새번역)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8장(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받고 일생 빛진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대 표 기 도 가족 중에서

▶성 경 봉 독 에베소서 5:8-9 / 인도자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 씬 선 포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에 우리 가족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입니다.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올 한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새해의 출발점에 서면 '무엇을 하겠다'는 결심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올 한해는 '더 잘 살아야지'라고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빛 나는 존재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세 가지 열매를 제시합니다.

첫째, 선함입니다. 이는 '서로를 살리는 말'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작용합니다. 선함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곁에 있는 가족을 살리는 따뜻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명절에 하고 듣는 말 한마디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고맙다", "고생 많았지?", "네가 있어 든든해." 이러한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둘째, 의로움입니다. 이는 '화목을 선택하는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은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바른 길은 '사랑'입니다. 내 고집이나 서운함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손 내밀고 관계를 세우는 것이 빛의 자녀가 맺는 의로운 모습입니다. 올해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 앞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화목한 길인가?"를 먼저 물었으면 합니다.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인가?" 물을 수 있다면 의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진실함입니다. 이는 '꾸미지 않는 순수함과 정직함'입니다. 빛 아래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과 비교할 때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하나님과 가족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서로에게 솔직해질 때 가정은 비로소 참된 쉼터가 됩니다. "미안해", "기도해 줘"라고 말하는 진실함이 우리 가정을 환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선하게 대하고, 화목을 선택하며, 진실하게 사랑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이 빛의 열매를 맺어, 가장 밝고 따뜻한 가정이 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찬 송 310장(아 하나님의 은혜로) / 다같이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 주 기도 문 (새번역)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